

첨단 전자유도가열장비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국내 특허 10여건 등록 및 해외규격 인증 취득



최기석

(주)스마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재속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 혹은 틈새시장을 공략한 신기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신제품 개발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특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기존의 핵심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0년 7월 (주)스마트가구로 법인을 설립하며 출발, 현재 첨단전자유도가열장비 전문기업으로 업종을 변경,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주)스마트코퍼레이션(대표이사 최기석)을 찾았다. 2004년 현재의 인천광역시



▲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지실러

시 서구 가좌동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그 해 12월 이지웰더(EASY WELDER) 기술을 개발하게 된 최기석 사장은 (주)스마트코퍼레이션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전기제어기기, 무역업종 추가, 이듬해 1월 전기, 전자 사업부를 신설하게 된다.

스마트코퍼레이션은 2006년에는 이지실러(EASY SEALER)를 개발, 샘플모델을 완성하며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의 포장전시회인 코리아팩 전시회에 이지실러

(EASY SEALER)를 선보이고, 대구 및 부산 국제식품전시회에도 참가, 호평을 받으면서 12월에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획득하게 됐다.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업종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만무할 터.

조선회사에서 설계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출신인 최기석 대표는 업종전환을 위해 해외 우수 전시회를 통한 자료조사 결과 '해체성 접착공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한다.

이후 일본의 학회를 소개받고 2004년 12월 일본 동경전기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전자유도가열접착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른 것.

현재 스마트코퍼레이션의 대표 제품은 휴대용 전자유도가열 접착기인 이지웰더(EASY WELDER)와 이지실러(EASY SEALER)이다.

이지실러(EASY SEALER)는 전자유도가열을 이용한 「씰링지」와 용기의 입구부를 접착하여 밀폐시키는 제품으로 접착 부에서만 열 발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용기를 밀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용물의 밀폐가 완전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비접촉 방식으로 생산의 경제성을 극대화했다.

커피 병, 음료수 용기, 분말 또는 액체의 포장 용기 등의 식품 포장 용기, 분말/과립/액체의 의약품 포장 용기, 분말/액체의 농약류, 각종 농산물 포장 용기뿐만 아니라 종이, 플라스틱류, 유리 재질, 금속 재질 등 밀봉이 필요한 포장 용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해 다양한 포장용기



▲ 다양한 전시회에 제품을 출품, 인정 받고 있다.

SMART

에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일상의 생활에서 물건의 제조나 설치시공 시에 대부분 접착 과정이 필요했지만, 접착 시 유·수성본드, 실리콘 또는 못이나 타카핀으로 접착 또는 고정을 하므로 접착제의 경화시간이 필요하고, 소음공해, 접착제 포장용기 폐기문제, 냄새 발생, 접착 후의 분리 폐기나 재생산 등이

어려워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 점을 개선한 스마트 코퍼레이션의 이지웰더(EASY WELDER)는 건식 접착공법으로 개발되어 짧은 시간내(재료 두께 5mm 접착 시 약 2초 소요)에 접착이 가능해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발생되지 않고, 접착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해체성 접착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지웰더는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고 공해 없이 접착할 수 있는 전자유도가열을 연구하여, 친환경 고효율의 휴대용 전자유도가열접착기의 개발로 산업계 전반의 접착 부분에 있어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했다는데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이지실러와 용기 밀봉 기술은 작게는 된장과 고추장들을 파는 기업과 크게는 유제품과 화장품 업체들에 제공되고 있다.

지붕재 등 건축자재를 부착하는 이지웰더 각 품목들은 국내 10여개 건설업체에 제공중이며, 전자유도가열 기술 제공으로 건설신기술 520호(주관업체-현대산업개발(주))도 등록 되었다.

그동안 최기석 사장은 창립과 업종 전환 이후 무엇보다도 시장변화에 대응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전한다.

특히 공동글로벌 네트워크



▲ 용기캡이 없거나 금속인 제품군에 적용된 핸드 실러



▲ 다양한 용기모델에 캡실링이 가능한 스탠드 실러

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일본, 미국 공동의 효과적인 글로벌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쪽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어 동경을 비롯한 홋카이도, 나고야 등 전국에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 동경팩출품과 미국 뉴욕에 위치한 포장기계 업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북미 시장의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코퍼레이션은 국내에서 전자유도가열기술에 대한 특허 10여건의 등록을 완료, 열건이 출원 중이며, 스마트 이지 실러(smart

easy sealer) SES-2100의 경우 해외규격인증(CE)을 취득하고 국제특허(PCT)도 출원하는 등 지난해 7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기석 사장은 앞으로 일반 가정용 식품 그릇을 밀봉하거나, 못 대신 접착 가능한 소형 복합 제품 등의 생산을 목표로 가정용 전자유도가열 응용 가전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실현을 이루고자 이지실러(easy sealer)를 가정용 가전등급으로 전자파 승인, CE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해체성 접착공법을 보급시켜 건축, 자동차, 가전제품, 농업, 토목분야 등에 사용 후 해체 시 자재의 재질별 분리를 통해 원자재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선 기술과 현명한 판단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다는 최기석 사장.

세계 최고의 첨단 전자유도가열장비 업계로 우뚝 서기 위해 신기술과 제품개발에 더욱 주력해 나갈 스마트코퍼레이션의 발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